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문 수정 카타리나

매주 토요일! 성북동 프라도의 집!

이 집은 아담한 이층 주택으로 조용하고 소박한 우리의 집, 예수님의 집이다.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형제자매들이 모여 감실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주일 복음을 읽고, 1시간 성체 조배를 한다. 그 후 묵상 한 것을 서로 나누고, 미사 봉헌과 친교시간을 가진 후 일정이 끝난다.

이렇게 토요일마다 만나서 본격적으로 성체 조배를 하게 된 경위는 참 제자 모임 회원의 자녀 (이 정민 비오 신부)가 부제 품을 프랑스 리용에서 받게 되었는데 우리모임에서 부제 품을 축하 해주기 위해 구 요비 신부님과 함께 성체 조배로 1년을 준비 한 후 부제 품에 참석하면서부터 계속되었다. 이렇게 줄 곧 4년이 흘렀다.

이전에 나는 성체 조배를 1시간씩 해 본 경험이 없기에 성체 조배가 무척 힘 들었다.

조용히 묵상하는데 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창피하고, 다리도 저리고, 졸음도 오고. 묵상은 잘 안 되고, 1시간이 얼마나 긴지... 무엇보다 남편의 비 협조에 나 혼자 다니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포기할까 하고 여러번 망설였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묵상하는지? 하느님과 통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꾸준히 토요일마다 성북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토요일 모임은 참 제자 모임의 씨앗이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석 하니까 기쁨으로 변화 되었다.

나는 월요일에 미리 주일복음을 읽고, 생활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생활로, 삶이 이어 지도록 노력 하였다. 이런 나의 삶을 가지고 성체 조배를 한 후, 서로 묵상 한 것을 나누는데, 다른 형제자매들의 묵상과 삶이 더해져서 복음은 큰 빛이 되어 나를 비추어 주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비춤으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선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 하였든 삶에서, 타인이 필요하다면, 나를 내어 봉사하는 삶으로 쉽게 바꾸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를 위한 욕망이 하느님 나라의 갈망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무엇보다 나의 발걸음을 불편 하게 하였던 남편이 함께 복음 묵상에 동참하여 영적 동반자가 되어 참으로 기뻐다. 이런 행복함이 있었기에 참석 치 못한 날은 프라도 집 복음묵상이 무척 궁금 하였다.

“집을 알기 위해서 집안으로 들어가 집을 이루고 있는 방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 세부까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실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의 제자와 사도의 길에서)“

아버지 사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신 슈브리에 신부님의 복음연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한 나의 삶에 사랑이 더해짐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처하시니 나는 복음을 실행하며 끝까지 항구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듯이, 나도 의로운 사람으로, 결점 없는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

나는 하느님의 커다란 호수 안에 빨대를 꽂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든든한 나의 영적 동반자와 손잡고 성북동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참 제자 마을 우렁이각시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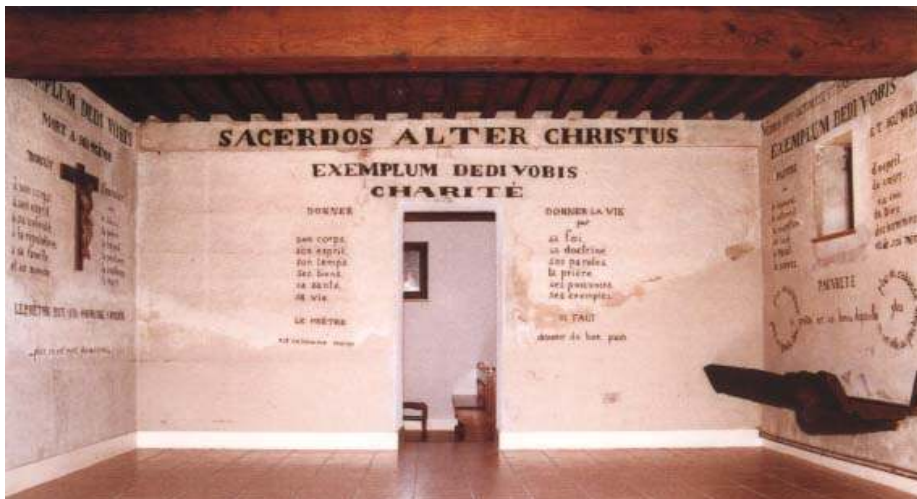
프라도 표장 및 생품의 도표설명



프라도 사제회의 표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표현하는 " 구유 - 십자가 - 감실 " 을 형상화 한 것인데,

사제직에 관한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이 요약되어있는 "생품의 도표"에서 유래합니다.



프라도의 집에서 아이들의 첫 영성체를 준비하고, 필요로 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신학생들을 양성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슈브리에 신부는 리용의 남쪽 변두리에 있는 생품이라는 동네의 밭 한가운데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피정을 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영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잘 정리해서 헛간의 벽에 기록해놓았다. 지금도 전 세계의 프라도 회원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되새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제는 제 2의 그리스도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요한 13,15)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구유의 가난과 십자가의 봉헌과 성체성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는 헐벗은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이며 먹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어떤 시대에 살았나?

복자 슈브리에 신부는 1826년 4월 16일에 프랑스 리용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결과로 공업화가 한창이었고 그 중심은 리용이었다. 농촌을 떠난 많은 농민들이 리용의 변두리에 와서 공장에서 비참한 조건으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2. 새로운 회심의 때, 1856년 성탄 밤

1846년 10월에 대신학교에 입학한 슈브리에에는 교회가 가난한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였다. 1850년 5월 25일에 리용 교구 사제가 된 슈브리에에는 열심한 보좌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던 중에, 1856년 여름에 리용을 뒤덮은 대홍수 때 헌신적으로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던 중에 그들이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856년 성탄 밤에 구유 앞에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회개를 위한 큰 빛을 받았다. ‘나를 회개시킨 것은 강생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땅 위에 내려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에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계속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3. 프라도 카바레에서 시작

그는 평신도 랑보를 만나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가난하게 생활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명을 분명하게 의식하게 된다. 사제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1860년 12월 10일에 그는 리용 변두리에 있는 프라도 카바레를 인수하여서 성당에서 제대로 교리를 배우지 못한 동네의 비참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6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가르치고 첫 영성체 준비를 시켰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일치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4.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 양성

그는 점차로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한 가난한 사제들을 양성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리용 교구장의 허락을 얻어서 댄스 홀이던 그 프라도의 집에서 소신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활동하던 라기요띠에르 동네의 가난한 집안 젊은이들의 부모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의 성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 젊은이들을 소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프라도 사제들을 양성하는데 그는 온 힘을 기울였다. 그는 신학생들이 복음연구에 충실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기를 원했으며, 그들의 양성을 위해서 ‘참다운 제자’를 저술하였다. 교구 사제들이 형제적 공동체를 이루기를 염원한 그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새롭게 일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교회는 많은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5. 생품의 영성

프라도의 집에서 아이들의 첫 영성체를 준비하고, 필요로 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신학생들을 양성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슈브리에 신부는 리용의 남쪽 변두리에 있는 생품이라는 동네의 발한가운데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피정을 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영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잘 정리해서 헛간의 벽에 기록해놓았다. 지금도 전 세계의 프라도 회원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되새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요한 13,15)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구유의 가난과 십자가의 봉헌과 성체성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는 햇빛은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이며 먹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 하늘나라로

슈브리에 신부는 1879년 10월 2일에 27살의 젊은 후계자를 남겨두고 하느님 나라에 갔다. 가난하게 살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준 그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1986년 10월 4일에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리용에서 그를 시복했다.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표**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 이웃 사랑의 실천과 배움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yangthomas@nave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10. 3. 5.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156	712,934,000	1,156	553,924,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가톨릭 명동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4억 원 중 회원님들의 협조로 1월18일 총 4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에 진입로 공사 및 피정의 집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주위에 권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봉헌금액 (2010.3.5) ; 13,084,972원

*** 매일 12시 정오**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삼종기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같은 시간에 다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2009년 동계피정(12/19-12/20)**

2009년 양업문화 교육원 참제자 동계 피정이 12월 19(토)-20(일)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용인 성모영보수녀원 피정의 집에서 1박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동계 피정이 39명이 참석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피정을 하였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개인 묵상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09 성탄 전야미사**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지내기 위해 성탄 전야 미사를 12/24일 오후10시부터 프라도의 집에서 5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구유예절 후 성탄미사, 성탄 축하 파티로 이어져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축하하였습니다.

*** 2010년 신년미사 및 신년 인사회**

1월9(토) 오후 5시부터 2010년을 맞이하여 경인년을 맞이하여 더욱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신년미사와 신년 인사회가 35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2010년 1월 영명축일 미사 봉헌**

1월16일(토) 17시부터 1월에 영명축일을 맞이하는 17명에 대한 미사봉헌과 축하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인성녀의 믿음을 본받아 더욱 주님과 함께 하기로 기도하였습니다. 2월은 2월20일 진행하였고, 3월은 3월13일(토) 17시 미사가 봉헌됩니다.

*** 양업 문화교육원 문화강좌**

2월21일(일)12시30분부터 낙성대동성당(구 봉천7동)에서 협성대학교 정 원주 교수께서 ‘부모님과 자녀를 UP시키는 대화법’에 대한 강좌가 있었고 강좌 후 운영위원회 이 재을 신부님, 진 교훈 원장님, 황 적인 전 원장님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양업문화강좌에 배리파스교사회, 참제자모임, 전통문화회 등 각각의 모임에서 양업문화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니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참석바랍니다.

*** 진 교훈원장님 제4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

천주교서울대교구에서 제정된 제4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이 2월18일 서울 로얄 호텔에서 양업문화교육원 진 교훈 원장께서 수상하셨습니다.

*** 3월부터 매일 묵상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소니 좋은 묵상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성3일 전례 안내**

사순절 성3일인 4월1일(성목요일), 2일(주님수난 성금요일), 3일(부활전야) 오후 8시 프라도집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